



Pangasinan Report of May

< 필리핀 팡가시난 >
1 6 0 5 0 1 ~ 1 6 0 5 3 1

> 목차

I. 덤프사이트

#다양함 #지구 기후교육 #넓은세상 #중간평가 #페이스페인팅

II. 푸가로

#그린하우스 #지붕 #아띠클라씨 #인사 #쓰나미힐

III. 싱가포르 워크캠프

#친구 #도서관 #삼수 #유림이의 안경 #영지 #해수 #라군

IV. 중간평가

#우주같은 팀장님 #변화 #맛있는음식 #힐링

V. 개인에세이



>5월 일정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쉬는날	2 푸가로	3 덤프사이트	4 푸가로	5 덤프사이트	6 푸가로	7 쉬는날
8 쉬는날	9 필리핀 선거	10 워크캠프	11 워크캠프	12 워크캠프	13 워크캠프	14 워크캠프
15 워크캠프끝	16 쉬는날	17 푸가로	18 사이트 방문X 오로라샘 오심	19 덤프사이트 동화샘 & 윤희국장님오심	20 프레젠테이션 ->푸가로	21 동화샘,윤희국장님 가 심
22 Hundred Island ,작별파티 With Singaporian	23 푸가로 ★인사한날★	24 덤프사이트 오로라샘 가심	25 회의(1)	26 회의(2)	27 푸가로	28 쉬는날
29 쉬는날	30 푸가로 편린 행사	31 덤프사이트				



> DUMPSITE





1주차 | 2주차 | 중간평가 | 4주차 | 5주차

이전에 해왔던 대로 그저
영어수업, 상처치료, 페이스페인팅 활동을 했다.

1주차 | 2주차 | **중간평가** | 4주차 | 5주차

~피드백~

“ 이미 덤프사이트와 ‘라운아띠’라는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활동을 시작해서 그런지 관계 맺음에 대한 애착이 덜한 것 같다.”

“ 덤프사이트를 가는 목적이 없는 것 같다.”

“ 덤프사이트만이 아닌 바깥세상 또한 보여주는 방법을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중간평가 이후 아띠들의 고민~

“우리가 너무 아이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 같다”

“덤프사이트를 가는 목적은 뭘까?”

“수업 내용이 지루한 것 같다.”

.

.

.

아이들에게 **다양한 세상**을 알려주자. 그리고 덤프사이트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소통하자!

아띠들이 목적을 설정하게 된 배경* 덤프사이트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10살이 넘어가면 부모님과 함께 쓰레기를 줍는 일을 배우고, 10대 중반에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우리는 그러한 환경 속의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한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고, 덤프사이트 외에도 다양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1주차 | 2주차 | 중간평가 | 4주차 | 5주차

“다양한 세상을 알려주자” 라는 목표가 생긴 후
첫번째 수업 -> 지구 기후교육

목적 : 지구에는 필리핀처럼 더운 기후뿐만 아니라 추운 기후, 4계절이 있는 기후, 건조한 기후 등 다양한 기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줌.

결과 : 아이들은 특별히 접해보지 못했을 추운 기후나, 우리나라의 4계절 중 봄과 가을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6월에는 더 다양한 내용으로 아이들과 함께 아띠클라세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ATTI's INTERVIEW : Dump site



동익 : 그냥 당연하게 가던 곳이 중간평가 후 조금은 정신을 다잡고 가게 된 것 같다. 이번 달에는 중간평가와 워크캠프로 활동을 많이 못하였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페이스 페인팅을 했던 일정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어서 좋았다.

현식 : 5월의 덤프사이트 활동은 3,4월과 마찬가지로 아띠클라세와 몸놀이가 주를 이룬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활동만을 하다 보니 조금 지루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중간평가와 더불어 활동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목적과 활동 방향을 잡게 되었고 앞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이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유림: 5월에 덤프사이트 활동은 싱가포르 캠프와 중간평가 일정으로 인해 자주 못 가서 아쉬움이 많았던 달 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세상을 알려주자는 목적을 설정한 뒤 수업준비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수업용품도 직접 만드니 아이들이 관심 있게 수업을 잘 참여하는 모습이 귀여워요!



연수 : “덤프사이트에 왜 가니?” 라는 말을 중간평가 때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좋고, 그들과 만나는 시간이 좋아서요”
라는 대답 외에 하지 못하겠더라 구요.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전 정말 뚜렷한 목적이 없이 단지 ‘그들이 좋아서’
이제까지 사이트를 갔던 거예요.
이제까지 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활동을 하며,
한정적인 내용의 반복이었어요.
치열한 회의 끝에 목적이 잡히고, 수업을 짜는데 신기하게도 어떤 활동을 할건지
술술 나와서 신기했어요.
기대됩니다. 앞으로가!
그리고 여전히 사이트만 가면 그들과 동화되어 헬렐레하는 제가 신기하고,
좋은 에너지를 발산해주며 절 행복하게 하는 아이들이 좋습니다.

“연수야 덤프사이트에 왜가니?”

“좋아서! 친구들은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줘.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
여주러 가는거야!”

다운 : 목적을 설정 한 뒤로 다양한 활동을 할 것 이라는 게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첫 수업이 기후교육이었어서..! 내 특기인 지구과학을 살려 준비 했을 땐,
내가 다 재미있었어요! 앞으로 우리의 수업내용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 PUGARO



5월 1,2주차

~활동 내용~

1. 지붕 만들기 - 센 햇볕을 조금이나마 막기 위해 그물로 지붕을 만들어 덮음

2. 식물 심기 - 토마토, 오크라, 스트링빈, 가지를 심었다

*"주 3회"로 가는 날을 변경해 푸가로를 자주 가게 되었지만, 계속 물을 주고 흙을 갈아엎는 그린하우스 활동 '만' 했다.

~중간평가 피드백~

“그린하우스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었으면 한다.”

“그린하우스 식물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야 될 것 같다.”

“식물에 애착을 더 가져보아라”

중간평가 기간 중 (5월 4째주)

하루는 지역간사님이신 오로라선생님과 함께 푸가로 방문을 했다.
그 날 하루 오로라 쌤은 우리에게 미션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우선 반갑게 "인사"하기!

"Magandang umaga Po!"
(좋은 아침입니다!)

오..웬열...~

웃으며 인사해오는 우리를 보고 아이들이 우리에게 물려들었고...
처음으로 우리는 우리만이 아닌 많은 아이들과 함께 그린하우스로 향했다!

동익옹-아이들이 자기할일 대신 해줘서 좋아하고 있음.



5월 4,5주차

~활동 내용~

1. 푸가로 사람들과 소통 - 아이들과 친해져 쓰나미힐도 놀러가고, 이장님도 만나보며 푸가로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함
2. 푸가로 정수시설 조사 - 작년 11월에 고장이 났다는 푸가로 정수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조사
3. 학교행사 Fun Run 참여 - 6월에 개학인 학교를 청소하는 cleaning event로, 5/30일부터 참여해 교내청소를 도와줌
4. 그린하우스 - 아이들과 함께 식물을 가꿈

*우리가 하는 활동이 점점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음!



푸가로, 어디까지 가봤니?

하루는 아이들과 함께 그린하우스를 가꾼 후, 아이들에게 말했다.
“푸가로 소개 해 줄래?”

그러자 아이들이 하는 말...
“쓰나미힐 가자~ 쓰나미힐~”
에...? 쓰나미...?

우리는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걸었다.
골목을 돌고, 무성한 풀숲을 헤쳐 겨우 마주하게 된 웅장한 쓰나미힐 이라는 곳...두둥..!

“롤리 여기가 뭐하는 곳이야?” - 아띠
“나도 처음 와보는 곳이야 모르겠어” - 3년차 코디네이터 롤리

이럴 수가…! 롤리도 처음인 곳을 우리가 와보다니…! (감격)

그곳은 너무 아름다웠다.
정말. 매우. 무척!!!

아띠들은 그렇게 한참을 쓰나미힐 위에서 아이들과 함께 걸으며 새로운 푸가로를 만끽했다고 한다
쓰나미 힐 후기 -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곳 같아 너무 신기해!” - 진격의거인 팬 이다운 Kikay양(21)



*6월에는 이렇게 친해진 아이들과 아띠클라씨, 나아가 350PPM캠페인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푸가로에서 관계형성을 해야 할까?' 에 대한 해답은 단지 반갑게 '인사'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반갑게 인사를 하자마자 물려들었던 아이들..
이 날 이후, 우리는 **인사라는 것이 관계형성의 기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푸가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마주하고, 친하게 지내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니
우리는 푸가로 주민들이 사는 푸가로는 궁금해졌고,
푸가로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볼 수 있게 되었다.

원래 우리가 생각한 푸가로 활동의 기초는 그린하우스를 잘 키우고 보는 것이었는데..
정말 기초로 쌓아야 했던 것은 **관계형성**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

ATTI's INTERVIEW : Pugaro



동익 : 푸가로가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한 달이었다.
그 동안 많은 고민과 활동을 하면서도 많은 의문들이 있었는데 중간평가 이후 간사님들의 피드백과 회의를 통해서 상당히 바뀌었다. 평소에 인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는데 푸가로에서 보경쌤과 '만나면 인사부터 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다. 5개월의 반이 지난 시점에서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아쉽지만, 남은 일정 동안 더욱 열심히 활동을 할 계획이다.

현식 : 여전히 그린하우스에 전념한 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푸가로에 머무는 시간도 항상 길진 않았고, 필요한 활동만을 하고 돌아 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전히 활동에 대한 방향과 목적을 고민 하던 시기, 보경쌤께서 '인사를 하면서 들어가보자' 라는 작은 아이디어로 인해 우리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푸가로에서 아이들과 활동을 했고,
자신감을 얻은 우리는 다양한 활동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린하우스가 푸가로 활동의 전부가 아니란 걸 깨달았고, 그린하우스와 더불어 주민들과의 다양한 소통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문제, 350ppm, 그린하우스에서의 아띠클라세 등등...
무수히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푸가로의 마지막 6월이 기대가 됩니다.



유림 : 5월쯤 접어들었을 때 저에겐 푸가로가 많이 애뒀해진 것 같아요.
또한 인사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먼저 인사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다가가니 아이들, 주민들과 친해져서 푸가로라는 지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찰을 하는 시간들 이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정이 들었는데요.
푸가로활동 할 때 마다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어 주고 싶어요. 파이팅!



연수 : 중간평가 전 까지만 해도 저의 푸가로를 가는 이유는 '그린하우스의 식물을 잘 기르는 것' 이었습니다.

네, 단지 식물 '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 이었지요.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채 항상 그린하우스만 가꾸고 나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간평가가 저의 시야를 확~ 넓혀주었어요!

전 이제 푸가로를 가는 목적이 '주민들과 소통하기' 가 되었습니다.

중간평가 이후 푸가로의 주민과 눈 맞추고 인사하며 서로 수줍게 웃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항상 반갑게 맞아주는 아이들과 함께 그린하우스를 가꾸고, 수업을 하고, 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덤프사이트와 푸가로를 별개로 받아들였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게 되었어요.

'주민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행복을 느끼는 것!'

이걸 이제 푸가로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생각만으로도 저에게 좋은 에너지를 줍니다.

다운 : 웃으며 인사를 한 다음날, 활동지를 갔는데 푸가로 사람들이 밝게 웃어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역시 인사를 하고 나니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변했구나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사람들은 항상 웃으면서 인사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건 내가 호의적으로 바뀌고 난 후 그 사람들을 예전과는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성)

앞으로 남은 한 달을 함께 잘 지내다 갈 수 있기를...!





> SINGAPORE WORKCAMP

광주시안YMCA와 싱가포르의 대학교가 함께 WORK PROJECT를 필리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총 3기로 구성되어있으며 1기수당 2주씩, 총 6주간의 장기프로젝트이다. 아띠들은 1기와 함께 San Carlos의 초등학교에서 도서관을 짓는 활동을 했다.

Dump site | San Carlos | Mapita

싱가폴 캠프 첫 날, 친구들의 첫 일정은 덤프사이트였고, 그곳에서 친구들은 피딩프로그램과 위생교육, 칫솔-치약 기부를 했다.

아띠들은 덤프사이트를 소개하고 주민과 싱가포르 친구들을 이어주는 것을 도왔다.

Dump site | San Carlos | Mapita

덤프사이트 다음 일정은 작은 시골마을인 San Carlos에서 진행되었다. 싱가포르 친구들은 Antipanghol 초등학교에서 열흘간 머물며 주로 ①도서관 짓기, ②마을 아이들과의 놀이수업 이 두개의 활동을 했고

아띠들은 이 중 5일을 싱가포르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했다.

모든 캠퍼들은 각각 Y.M.C.A 4그룹으로 나누어졌고, 2그룹씩 번갈아가며 두 활동을 진행하였다.

YMCA of Pangasinan, Inc.
Singapore-Pangasinan International Service Program

TASKING

DATE	Construction	Workshop	Support
12-May	YM	C	A
13-May	CA	Y	M
14-May	XxX	XxX	Filipinos
15-May	XxX	XxX	XxX
16-May	YM	A	C
17-May	CA	M	Y
18-May	YM	C	A
19-May	CA	Y	M
20-May	YM	C	A



Support Group Will Be Divided into 4 Tasks

Morning Devotion Marketing Food Preparation Cleanliness

GROUPINGS

Y	M	C	A
Cardo	Atong	Kikay	Lagring
Jerome	Jolly	Ervin	Narda
Charmaine	Mabel	Mel	Monseur
Elizabeth	Zyrus	Geraldine	Jerven
Cui En	Zara	Greg	LinQi
Sherye	Melissa	Ayu	Alicia
Ronna	Yun Xian	Ginice	Swee Ying
Cassius	Jing Yi	SinYee	Cheng Sheng
Alfred	Chris	Wei Kiat	Malvin



#삽수 이야기

- Edit by Daun (Kikay)



여기는 도서관을 짓는 공사장..
한창 활동이 끝나고 쉬는 시간, 공사현장에
는 아버지들만이 철근을 세우고 있는데...

어라..? 저 사람은..! 박삽수양이 아닌가..?!

*박삽수 (Narda.22세)
특이사항 : 최근 그린하우스 활동을 통해
'삽질'에 특기를 발견함



“연수(Narda)야 쉬엄쉬엄해” - 동익
“아 오빠 조금만 더 하구요!”
“그래 뭐든지 열심히 해 봐!”-현식

그렇게 삼수는...1cm라도 더 파기 위해
삼을 들고 혼자 고군분투 했는데..

.
.
.

(몇 분 후)
“ 언니 오빠들~~ 사진찍자!! ” -다운(Kikay)



이것이 1cm를 더 파려던 삼(연)수 의 결과였다고 한다.. -fin

*이날 이후 오빠들은 삼수에게 군입대를 추천하고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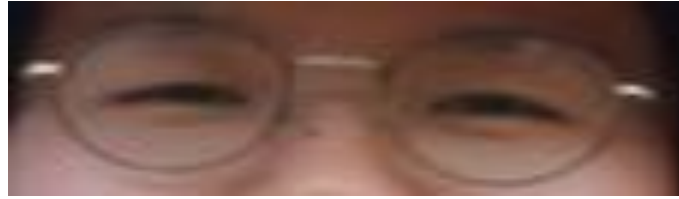
Dump site | San Carlos | Mapita

싱가폴 캠프 일정 중 하나인 '나무심기' 와 '피딩 프로그램' 을 하러
우리는 산속 깊은 곳으로 떠났다.

겨우 산을 넘고 넘어 도착한 한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나무 한 그루씩(모종)을 심었고
친구들이 준비한 싱가포르 전통게임을 하며 주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난 후 점심시간이 되어 마을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어 먹은 뒤

우리는 그곳 근처 명소라고 하는 '라군' 에 갔다.
그 라군은 물이 깊어 다이빙을 할 수 있었다.
원래 수영계획이 없었지만 너무 예뻐던 그곳에서 우리는
짧고 굵게 수영과 다이빙을 즐겼다.





#유림이의 안경 - in Mapita

라군에서의 수영시간 .. 5명중 유일하게 수영을 하지 못하는 다운이가 패기 있게 다이빙을 했지만 호수를 건너지 못해 사색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 다운이를 본 유림..

“ 다운아! 언니 어깨 잡아 호수 같이 건너가자! (튼튼) ” - 유림

“ 어머..! 유림언니..! (걸크러쉬) ” -다운

그렇게 들은 사이 좋게 물을 건너게 되었고.

호수 증반쯤... 유림의 도움으로 잘 건너가던 다운이가

갑자기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려는 찰나..! (몸이 맥주병)

유림이가 다운이를 급히 물 위로 올려준 후 장렬히 호수 밑으로 가라앉고 마는데..

다행히도 다른 YMCA친구들의 도움으로 둘 다 무사히 물 밖으로 나오게 된 둘!

하지만..웬걸! 유림이의 안경이 사라진 것 이 아닌가!!

많은 친구들이 유림이의 안경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워낙 물이 깊고 어두워 안경은 잘 찾기지 않았고... 유림이가 안경 찾기를 포기한 그 때..!

혜성같이 전 YMCA수영강사 초코가 나타났고..!

열악한 환경을 뚫고 초코는 짠 하고 유림의 안경을 찾아주었다!! (멋짐지수 100배 상승)

그 후, 유림은 초코를 신처럼 모시고 있으며 (초코의 열렬한 신도가 된 유림)
귀국 전에는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모기장을 선물하기로 했다고...

.
.
.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다운 : "중반쯤 가니까 어떻게 뜨는지 알겠더라! 가라앉다가 손 휘저으니까 물 위로 뜨던데?! (신남)"

팀원 : ... (피식)





짧지만 강렬했던 5박6일.

이 시간동안 우리는 많은 활동을 했고 다양한 경험을 얻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싱가폴 친구들과의 '관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렇게 친구들과 한마음이 되어 캠프를 즐겼다.



번외| Hundred Islands

5일의 싱가포르 캠프를 지내고 아쉬워하는 우리에게 지미총장님 께서는 1기의 마지막 일정인 Hundred Islands에 같이 가는 것이 어떨까 하셨고, 우리는 기분 좋게 그 일정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후 팡가시난Y에서의 마지막 밤을 작별하는 fare well 파티에도 참가해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고 그 동안의 일정을 함께 정리하는 시간도 가졌다. 😊

ATTI's INTERVIEW : Singapore camp



동익 : 싱가포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던 나에게 굉장히 좋은 기억들을 주고 간 캠프였습니다. 워크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제자원활동이라는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같이하는 공식적인 일정인 아침식사에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자고 했었는데, 관계뿐만 아니라 좋은 추억까지 만들었던 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식 : 워크캠프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아주 큰 일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일만 하겠구나 라는 저의 생각은 처참히 무너졌죠..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한 그 동안 소홀한 관계를 유지했던 YMCA 친구들과도 많이 가까워 질 수 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중간평가 일정이 수정되는 바람에 "워크캠프에 참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는 고민도 하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참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유림 : 다 같이 함께 여러 활동한 것들이 생 각 나네요. 도서관 공사가 제일 힘들었어요. 특히 땅파기!!
삽질하면서 몸이 고생했습니다. 밤에는 하늘에 별들이 많이 보여서 매트 깔고 누워서 별을 가만히 보았는데 별보다가 별뿔별 7개 관찰하여 소원을 많이 빌었지요.
아..그리고 저의 생명의 은인 초코가 떠오르네요. 라군에서 안경을 잃어버렸는데 초코가 물 속에 들어가 찾아주어서 천만 다행이었구요. 만약 못 찾았으면 전 다시 안경을 새로 구입했었어야 했을 겁니다. 초코는 저의 하늘과 같은 신 입니다.



연수 : '싱가폴'이라는 나라를 전혀 몰랐던 저에게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좋은 인식을 심어줬던 캠프였던 것 같아요.

처음 쑥스럽게 친구들을 만났던 날부터 점점 친해지는 하루하루가 소중했고, 오히려 '5일만' 참가했던 것이 아쉽게 느껴졌던 캠프였습니다.

(특히 밤에 친구들과 조용히 속삭이면서 수다를 떨 때에, 마치 수련회를 하는 초등학생의 저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 재미있었어요!)

싱가폴 친구들이 한국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며, 한국어를 말하고, 한국의 티비 프로그램을 알 때 그들이 주는 관심에 너무 감사했고, 신기했었어요.

비록 친구들은 이 곳 필리핀을 떠났지만, 친구들과 연락을 하며 서로를 생각하고 소통을 함에 있어 우리는 마음으로 이어진 이별 아닌 이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캠프에 참가했던 YMCA친구들과 필리핀Camper들과도 이 시간을 통해 더 친해질 수 있었기에 캠프에 대해 더 애뜻한 마음이 듭니다.

다운 : 처음에는 싱가포르 여행갈 때 팁이나 얻어야지 하고 가볍게 갔다가 무겁도록 많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얻어 서 돌아왔던 캠프였어요. 친구들이랑 정말 많이 친해짐은 물론 친구들이 정말 여행일정까지 다 짜줘서 너무 고마웠다는..!
한편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싱가포르 친구들이 홈스테이 가고 우리밖에 없던 밤, 공사장에 매트 깔고 노래 틀고 다같이 누워 별을 봤던 것... ★
내 생애 첫 별똥별을 수도 없이 봤었던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YMCA of Pangasinan, Inc.
Dagupan City

WELCOME

MS. LUNA DONGHWA YANG
Program Staff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MS. AURORA BOKYUNG KIM
Program Staff
Anyang YMCA, Korea

May 18-24,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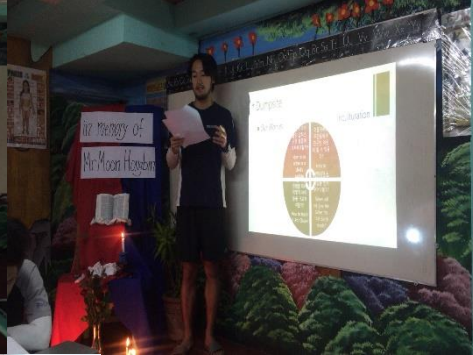
> MID-TERM EVALUATION

5/18~24일까지 진행되었던 중간평가!

우주같은 우리 동화팀장님, 평가시난의 전설 오로라 보경 간사님, 아버지 같은 이
윤희 사무국장님(Of YMCA 마닐라)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중간평가 기간은 우리 아띠들에게 있어서 단비같은 선생님들이 가뭄처럼 메말라있
던 우리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고 간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중간평가 기간 동안 활동 보고 이외에도 사이트방문을 함께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전 안양 YMCA 사무총장님이신 故문홍빈 총장님의
기일을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다.



남은 6월의 활동방향

우리의 5월을 정리 해 보았을 때, 1,2주와 4,5주의 활동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그 이유는 **중간평가 이후**, 우리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고, **활동방향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간평가에서 받은 피드백을 통해 우리는 어느 때 보다 더욱 치열하게 고민했고, (이틀을 회의만 하며 보냈음) 덕분에 활동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우리 안의 동기의식이 생겨났다.

1. 덤프사이트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 는 목적이 생김

6월에는? 다양한 내용으로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아띠클라쎄를 함께 할 것

2. 푸가로

인사를 통해 푸가로 아이들과 관계형성이 잘 되었음.
(그린하우스는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써 푸가로 사람들을 만나는데 요긴하게 쓰일 예정.)

6월에는? 친해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푸가로 아띠클라쎄 예정.
주제는 350PPM을 염두에 두고 한달동안 프로그램을 짜서 활동 할 것이며
아이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푸가로 사람들과도 활동 할 것이다.



> 개인 에세이

박연수(NARDA)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이름 '박연수' 보다 더 많이 불려온 'Narda'란 이름. 이 이름이 과연 날 만났던 친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기억될까?

좀 더 친근히, 밝게, 빛나며
'나' 다운 모습으로....!

'나' 답다, 과연 난 이곳에서 정말 '나'다워 지는 걸까?
나를 잃어가는 느낌이 더 큰 지금.
너무 어렵다.

A thing of Beauty is a Joy FOREVER!

싱가폴 캠프 갔을 때 보았던 문구이다.

이 문구를 보고 항상 "연수야, 즐기고 있니?"라고 말씀하시던 아빠생각이 났다.

즐긴다... 과연 나는 이 라온아띠를 즐기고 있을까?

아직까지도 난 잘 모르겠다.

"연수야, 잘하고 있어. 조금만 힘내!"

내가 나에게 제일 많이 한 말.

이 말을 한 사람이 내 자신이라는 것이 너무 슬프고도 다행이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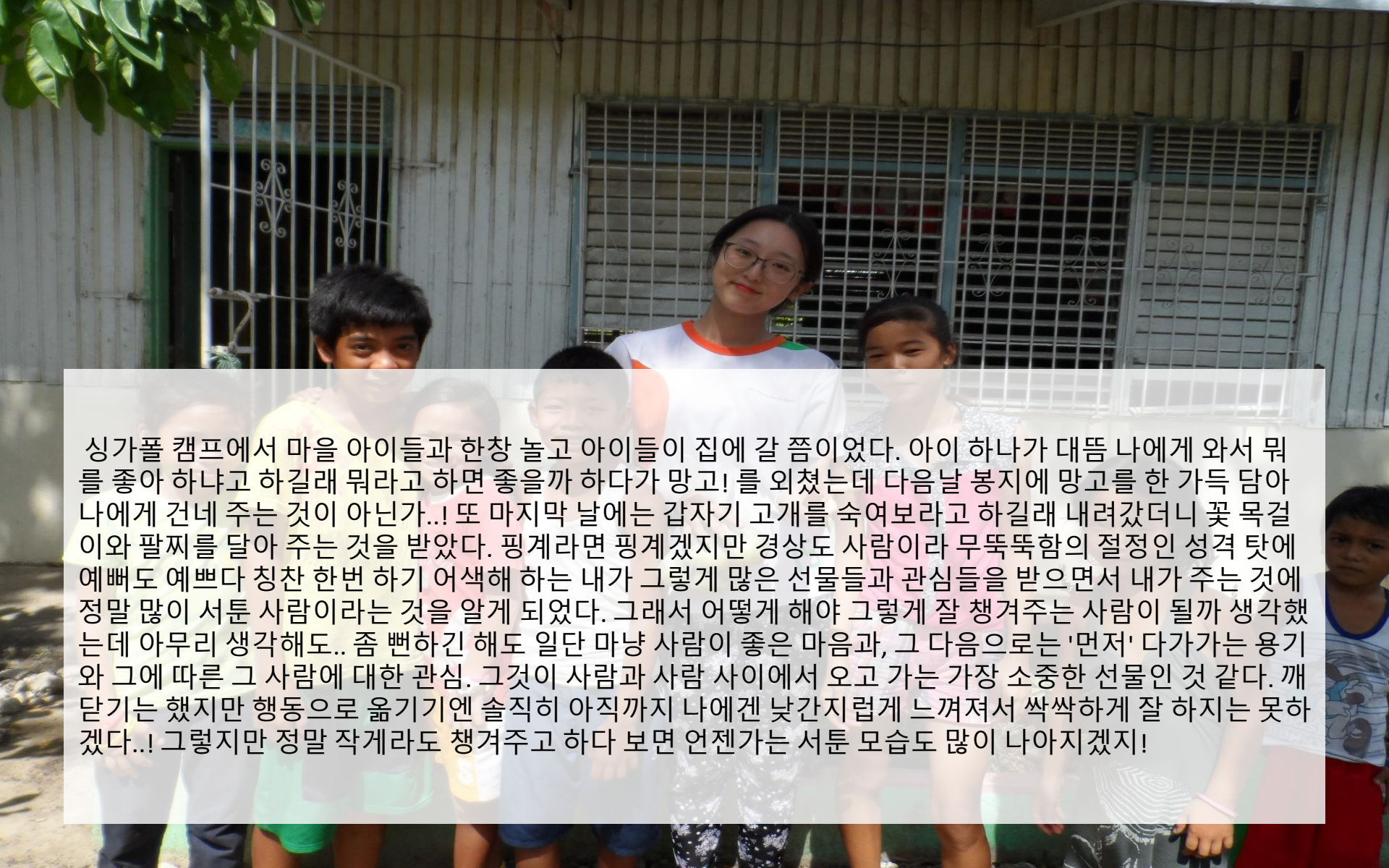
아...난 아직까지도 매우 어리고, 투정만 부리는 애구나!

성숙, 커간다, 성장한다. 왠지 이 단어들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요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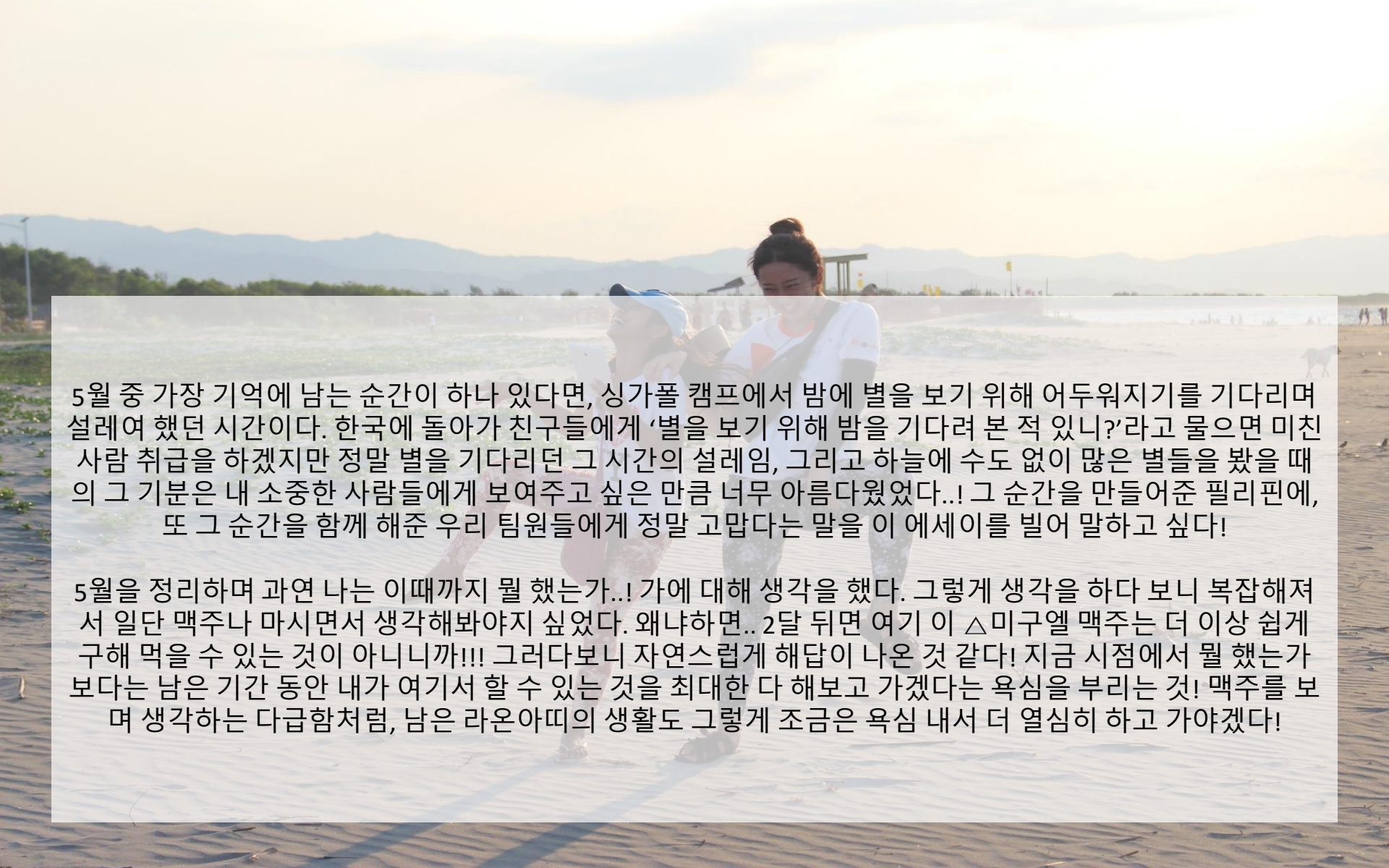
이때까지 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모습은 내가 다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상반된 내 몇몇 모습들을 외면했었고 부정해왔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을 만나는 일이 나에게 는 마냥 즐거운 일이 되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꼭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괜히 부러움을 느껴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열등감에 곧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나는 애써 많은 사람을 만나러 다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라운아띠'로서의 생활을 하며 나는 싫던 좋던 사람을 많이 만나야 했고, 이제는 그 덕분에 점점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생각이 많이 바뀌어감을 느낀다. **'내 마음은 온전히 내 것이지만 그 마음을 굳이 나로써 다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생각이 들고 부터는 내가 남과 비교해 작아지는 듯한 열등감도, 사람을 만나기 전 그런 열등함을 걱정하는 일도 줄어들었다. 오히려 이제는 내가 가지지 못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나의 빈 모습들을 채워가고 있다. 덕분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내 모습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마주하고 있다.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으려 했지만 생각해보니 이건 자존심에 달린 것 보다는 내 마음 벌이 중 하나였던 것 같다. 그저 내 마음 하나를 비워 그 공간을 다른 사람의 좋은 모습으로 채우면, 그것이 내 모습은 아니지만 텅 비어있지는 않으니까.

A group of children, including a girl with glasses in the center, are standing in front of a building with metal grates. The scene is outdoors, and the children appear to be in a community or camp setting.

싱가폴 캠프에서 마을 아이들과 한창 놀고 아이들이 집에 갈 즈음이었다. 아이 하나가 대뜸 나에게 와서 뭐를 좋아 하나고 하길래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하다가 망고! 를 외쳤는데 다음날 봉지에 망고를 한 가득 담아 나에게 건네 주는 것이 아닌가..! 또 마지막 날에는 갑자기 고개를 숙여보라고 하길래 내려갔더니 꽃 목걸이와 팔찌를 달아 주는 것을 받았다.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경상도 사람이라 무뚝뚝함의 절정인 성격 탓에 예뻐도 예쁘다 칭찬 한번 하기 어색해 하는 내가 그렇게 많은 선물들과 관심들을 받으면서 내가 주는 것에 정말 많이 서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렇게 잘 챙겨주는 사람이 될까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뻥하긴 해도 일단 마냥 사람이 좋은 마음과, 그 다음으로는 '먼저' 다가가는 용기와 그에 따른 그 사람에 대한 관심.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가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 같다. 깨닫기는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엔 솔직히 아직까지 나에게겐 낯간지럽게 느껴져서 싹싹하게 잘 하지는 못하겠다..! 그렇지만 정말 작게라도 챙겨주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서툰 모습도 많이 나아지겠지!



5월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 있다면, 싱가포르 캠프에서 밤에 별을 보기 위해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며 설레여 했던 시간이다. 한국에 돌아가 친구들에게 '별을 보기 위해 밤을 기다려 본 적 있니?'라고 물으면 미친 사람 취급을 하겠지만 정말 별을 기다리던 그 시간의 설레임, 그리고 하늘에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을 봤을 때의 그 기분은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만큼 너무 아름다웠다..! 그 순간을 만들어준 필리핀에, 또 그 순간을 함께 해준 우리 팀원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이 에세이를 빌어 말하고 싶다!

5월을 정리하며 과연 나는 이때까지 뭘 했는가..! 가에 대해 생각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복잡해져서 일단 맥주나 마시면서 생각해봐야지 싶었다. 왜냐하면.. 2달 뒤면 여기 이 △미구엘 맥주는 더 이상 쉽게 구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해답이 나온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서 뭘 했는가 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 해보고 가겠다는 욕심을 부리는 것! 맥주를 보며 생각하는 다급함처럼, 남은 라온아띠의 생활도 그렇게 조금은 욕심 내서 더 열심히 하고 가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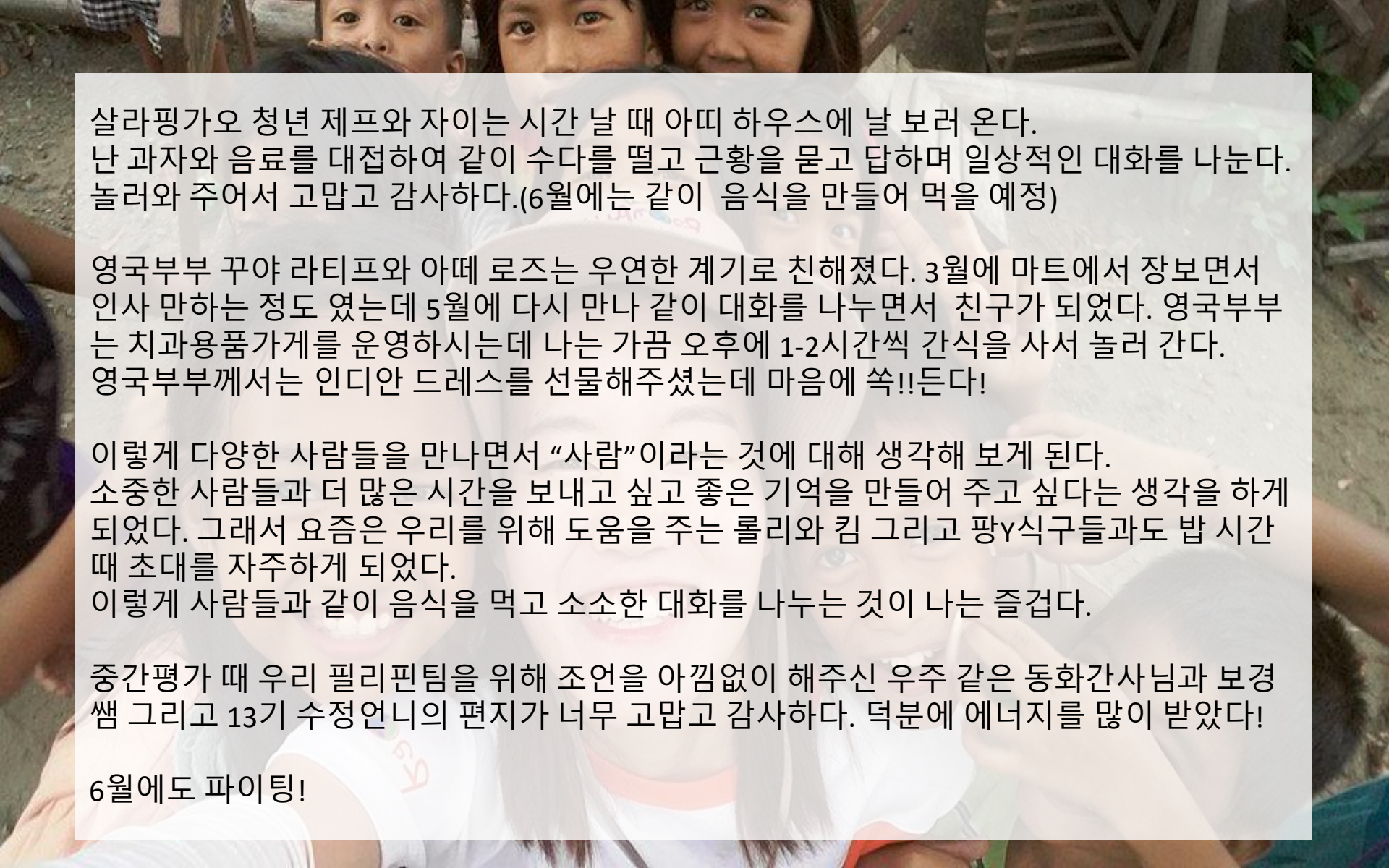
A background image showing several children, likely in a rural or developing area, looking towards the camera. The image is slightly blurred and serves as a backdrop for the text.

조유림(LAGRING)

요즘 마음이 싱숭생숭 다양한 감정이 많았던 5월 달 이었던 것 같다.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있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 것 같다. 싱가포르 학생들, 푸가로 아이들, 살라핑가오 청년들, 팡가시난 YMCA사람들, 영국부부 등이 사람들과 함께 일부러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것 같다.

난 싱가포르 캠프 계기로 싱가포르인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거기서 학생들과 5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이 많이 쌓였다. 도서관 공사 중에 땅파기 및 나무 뽑는 힘든 작업과 아이들 수업을 같이 도와주고 협동하여서 하였기에 더 애뜻함이 생긴 거 같다.

푸가로 아이들은 5월 달이 되어서 뒤늦게 친해졌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다. (텀프사이트 아이들에 비해 못해준 것 같아서) 중간평가 때 조언을 많이 받고 난 후,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게 되었다.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니 아이들도 다가와 주었는데 인사한 첫날에 아이들이 우리에게 춤과 노래를 불러주었다. 또한 우리에게 마을구경 시켜준다고 햇빛강한 낮에 땀 뻘뻘 흘리면서 쓰나미 힐 구경시켜준게..감동..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우리가 배타고 오는 길 앞에서 마중 나오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배웅해주었다. 그러면서 난 서서히 아이들에게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다. 활동을 갈 때 마다 최선을 다해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어 주고 싶다.



살라핑가오 청년 제프와 자이는 시간 날 때 아띠 하우스에 날 보러 온다.
난 과자와 음료를 대접하여 같이 수다를 떨고 근황을 묻고 답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다.
놀러와 주어서 고맙고 감사하다.(6월에는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을 예정)

영국부부 꾸야 라티프와 아떼 로즈는 우연한 계기로 친해졌다. 3월에 마트에서 장보면서
인사 만하는 정도 였는데 5월에 다시 만나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가 되었다. 영국부부
는 치과용품가게를 운영하시는데 나는 가끔 오후에 1-2시간씩 간식을 사서 놀러 간다.
영국부부께서는 인디안 드레스를 선물해주셨는데 마음에 쏙!!든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좋은 기억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를 위해 도움을 주는 롤리와 킴 그리고 팡Y식구들과도 밥 시간
때 초대를 자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나는 즐겁다.

중간평가 때 우리 필리핀팀을 위해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신 우주 같은 동화간사님과 보경
쌤 그리고 13기 수정언니의 편지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덕분에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

6월에도 파이팅!



제프(왼쪽)와 자이(오른쪽) 살라핑가오 청년들과 수다



인디안 드레스 선물 받고 기뻐하는 나



라티프 아저씨

서현식 (ATONG)



라운아띠 활동의 절반이 지난 시점이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잘했다 혹은 못했다 등의 평가는 내리고 싶지 않다.
그 동안의 활동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아쉬운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다.
5월에 내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부분은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다.
지난 3개월 간 내가 잠깐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다.
그냥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만 한 것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달은 상대방과의 “관계 맺음”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인사부터 시작하여 대화를 이어나가고, 그 순간 뿐만이 아닌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새로 알게된 친구들이 많아졌고, 처음보는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한 달 한 달 나 자신을 돌아보며 변해가는 부분이 느껴지는 게 신기하다.
무엇을 더, 얼마나 느낄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모든 순간이 너무나 소중한
그저 지금의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벌써 끝을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것에
간절해지고 있는 것 같다.

변동익(CARDO)

이번 달은 큰 일정으로 워크캠프와 중간평가가 있었다. 이 두 일정을 통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많은 심적 안정을 주고 우리의 활동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보완 해야 할 점들을 잘 짚어주셨다. 우선 워크캠프는 도서관 만들기라는 육체적으로 정말 고된 일정이었지만, 그 활동 속에서 처음 만나보는 싱가포르 친구들과 현지 YMCA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 이게 말로 전하니까 조금 약하게 전달이 되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추억이었고 싱가포르를 놀러 갈 계획까지 생각을 했다. 그 만큼 워크캠프는 성공적이었고 싱가포르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우주와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양동화 샘과 필리핀 팀의 간사로 너무나 알맞은 어미새 보경샘의 방문에 내 배는 쉴 틈 없이 먹고 있었으며, 몸과 마음이 너무나 편안했었다. 이는 중간평가전까지 였다. 중간평가 이후로 안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간사님들의 이야기에 "아..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팀들은 중간평가 전과는 다른 자세로 활동에 임하게 되었다.

간사님들의 이야기 중에 푸가로 이야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양동화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라"라는 말에 푸가로=그린하우스 작물을 무럭무럭 키워서 우리가 이만큼 했어요. 이렇게만 하려 했던 것 같았다. 그리고 보경 샘과 함께 푸가로에서 "인사하기" 또한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인사하기를 하기로 한 날에 2달 반 동안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보았다. 열댓명의 아이들과 함께 그린하우스를 가꾸고 아이들과 놀고 왔었다. 이게 우연일까? 다음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모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음날에도 인사를 하면서 푸가로를 들어가니 똑같이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모여들었다. 여기서 내가 느낀 것은 "미소를 머금고 상대방에게 반갑게 인사하기"가 생각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마치 인사는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까나?? 마치 기초가 잘되어 있는 학생이 응용문제를 만났을때 풀듯이, 인사를 통해 그들과 관계를 쌓아 놓는다면 나중에 그들과 함께 활동을 할 때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중간평가전에는 많은 의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문을 갖기보다는 정말 열심히 활동에 집중을 하게 되었다.

이번 달에는 싱가포르 친구들 덕분에 좋은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고, 인사의 중요성을 느꼈던 한달이었다. 중간평가가 지나가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느낌이 들었다. 아쉽지 않게 재미있게 활동을 하고 즐겨야겠다.

Thank you Po!

Raonatti 15th Philippines Pangasinan
Cardo | Atong | Lagring | Narda | Kikay
변동익 | 서현식 | 조유림 | 박연수 | 이다운